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과속 단속 시행 발표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단속 캠페인 실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주 전역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다음 주에 순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록펠러 칼리지(Rockefeller College)의 교통 안전 관리 및 연구소(Institute for Traffic Safety Management and Research)의 데이터에 따르면, 안전 속도를 초과한 운전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심각한 충돌 사고 34 퍼센트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2019년에는 30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 제한은 단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법규입니다. 과속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고 도로 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주민께 현명하게 속도를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단지 몇 분을 아끼려고 출근이나 쇼핑을 하러 가면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식 제고 단속 캠페인은 주지사 직속 교통 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의 지원을 받으며, 과속 및 속도 위반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주 전역의 방송 및 케이블 네트워크에서 "변명은 그만(No Excuses)" 공익 광고가 방송될 예정이며,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조합니다. 또한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전광 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과속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에서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충돌사고는 여름 기간 중 증가하며, 6월부터 9월까지 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뉴욕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1/3이 과속이며, 그 중 42 퍼센트가 속도 제한이 시속 55 마일 이하인 지방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과속과 관련이 있는 사망 및 상해 충돌 사고의 36 퍼센트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NHTSA에 따르면, 과속 운전자는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및 운전 또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등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차량관리부(DMV)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 단속 주간(Speed Awareness Week)와 같은 집중 단속 캠페인에 대한 GTSC의 지속적인 지원은 중요한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뉴욕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과속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속도를 줄여서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통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Keith M. Corlett 뉴욕주 경찰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은 불필요하게 죽음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캠페인 기간 동안 그리고 연중 단속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과속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줄이고 뉴욕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에게 촉구합니다. 안전에 조심하고, 게시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방어적으로 운전하고,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통부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작업 구역에서 안전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작업 영역은 속도 제한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매일 내놓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부는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안전 속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과속 단속 주간(Speed Week)'과 같은 공공 안전 캠페인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뉴욕 전역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운전자들이 도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 겸 뉴욕주 보안관 연합(New York State Sheriffs' Association) 회장인 Jeffrey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안관을 대신하여, 우리는 속도 제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속은 종종 충돌 사고의 원인이며, 사람을 해치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지켜 운전하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사고를 예방할 여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 타운 경찰서장 겸 뉴욕주 경찰서장 연합(NYS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회장인 Patrick Phel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법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속이 계속 충돌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번 캠페인과 같이 강력한 교통 안전 인식 제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단속 노력을 강화하는 협동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이번 "과속 단속 주간" 단속 캠페인은 뉴욕의 도로에서 안전을 개선하려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 노력의 일환입니다. GTSC는 법 집행을 위한 중요 교육 지원 외에도 연중 교육 및 단속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며, 10대 안전 운전, 졸음 운전, 오토바이

안전, 도보 통행자 안전, 안전벨트 착용 등 주요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 행사를 주최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